

향교·서원, 문화사랑방으로 거듭난다

나주향교 '굵은 소나무학교' 등 전남 7곳 문화재청 활용사업 선정

전남도는 문화재청이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2014년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에 나주향교의 '굵은 소나무학교' 등 전남지역 7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재청이 제왕·문중 행사에 치중해 고리타분하고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한 향교와 서원을 교육·문화·관광이 복합

된 문화사랑방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전국에서 38곳이 선정됐으며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전남도는 이번 활용사업을 통해 전통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사람과 이야기로 생기가 가득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화사랑방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에서 선정된 사업 중 나주향교의 '굵은 소나무 학교'는 지역 문화인력 양성과 원도심 재생을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나주목 관아와 향교(사적 제483호) 일원에서 나주 역사 인문학 강좌, 문화유적 답사, 예술 공연을 여는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도

시 목사골 나주의 정취를 느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문과 무(武)로는 장성한 곳이 없다는 '문불여(文不如), 무불여(武不如) 장성에서의 1박 2일'은 필암서원(사적 제242호), 봉암서원(기념물 제54호), 박수량 백비(기념물 제198호)를 연계해 조선 왕세자 교육, 전통무예, 옛 책 만들기, 청백리 체험을 한다.

이밖에도 창평향교의 '예학 창평향교 27성현의 초대를 받다', 구례향교

의 '향교야 놀자', 능주향교의 '즐겁게 배우고 체험하는 전통예절 제례법', 화순향교의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 무안향교의 '황토골 문화 인터페이스 향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충경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담은 향교와 서원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창평향교의 '예학 창평향교 27성현의 초대를 받다', 구례향교



담양, 산불감시원 발대식·안전교육

담양군은 "지난 7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산불감시원 발대식과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발대식에서 산불감시원들은 '산불방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산불 예방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담양=정재기기자 jig@kwangju.co.kr

청림문화 확산 학술대회

25일 장성서 열린다

장성에서 한국 청림문화의 확산과 연구를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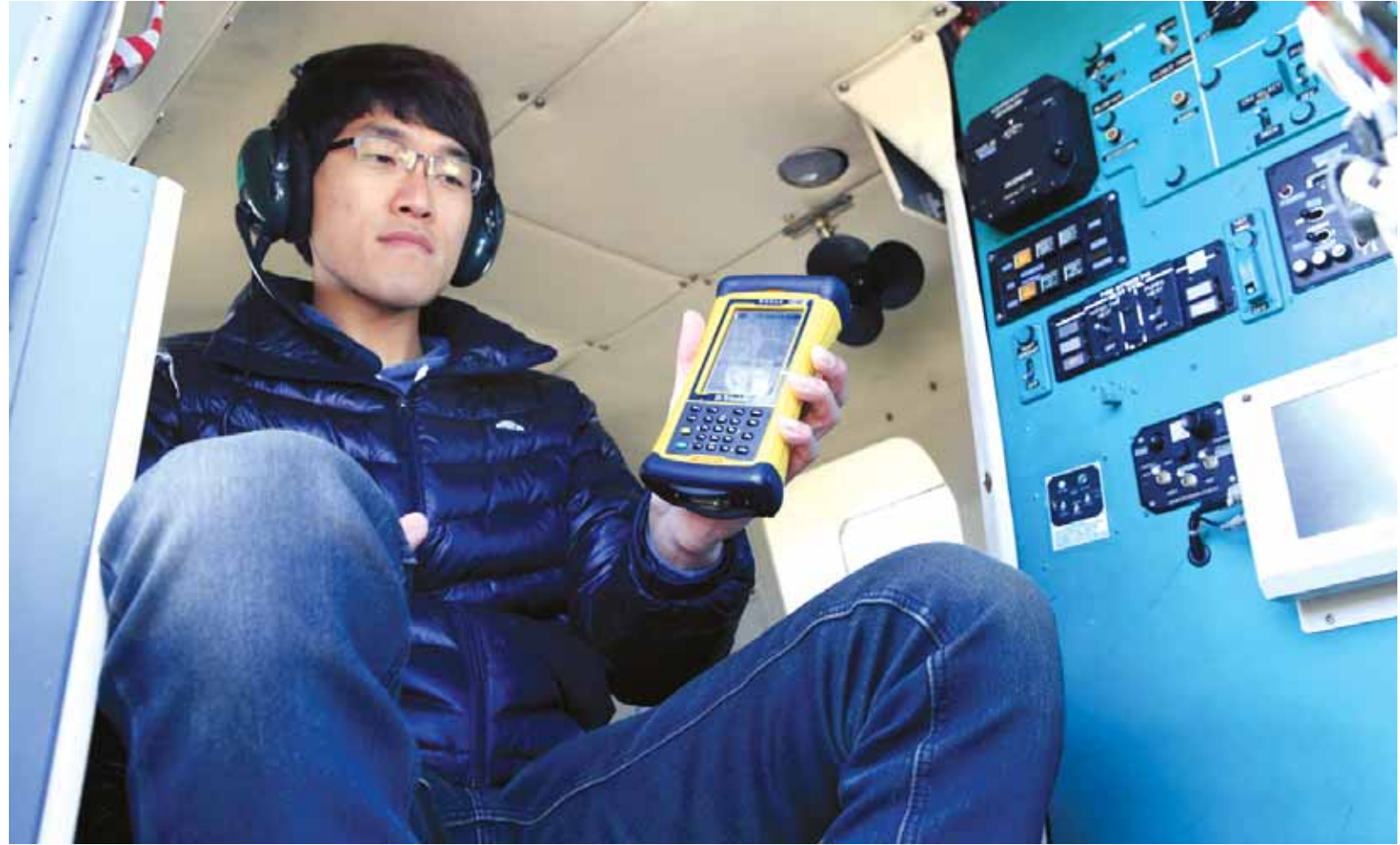
11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군 청림문화 연구교육위원, (사)한국부패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림·반부패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한국 청림문화 확산을 위해 협약을 맺은 장성군과 (사)한국부패학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기획·색션과 각 분임발 학술논문 발표 및 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25일에는 장성문화회관에서 이만중 호원대 교수의 사회로 기획·색션이 열린 후 3개의 분과로 나눠 한국 청림문화에 관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참가자들이 필암서원 및 청백리전사실 관망, 백비탐방과 축령산 투어 등 군이 추진 중인 청림교육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재선총 감염 의심목 조사 항공 예찰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11일부터 8일간 항공기 2대를 투입, 광주·전남 소나무 군락지역을 대상으로 재선총병 항공 예찰을 한다. 지자체 산림병해충 담당 공무원이 도면과 GPS를 이용해 지상에서 찾기 어려운 비가시권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재선총병 감염 의심목을 정밀 조사한다./연합뉴스

전북

정읍·고창 마을만들기

지역창안학교 86개팀 입교

지역공동체·실무교육 실시

정읍시와 고창군이 함께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지역창안학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지역창안학교 입교식이 지난 10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입교식에는 정읍시와 고창군에서 지역창안학교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39개의 마을공동체, 47개의 창업공동체 등 총 86개 팀 260여명의 각 공동체 대표자 및 참여자들이 참석했다.

지역창안학교를 주관하는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역창안학교에는 96개 공동체에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장심사와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정읍시에서는 52곳, 고창군에서 34곳 등이 창안학교에 입교했다.

이들은 입교식부터 수료식까지 총 5회 15강좌 32시간의 마을만들기 교육을 받게 된다.

창안학교 과정에는 사업예산 50곳은 300만원, '뿌리단계' 우수공동체는 심사를 거쳐 3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입교식에서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위원인 우석대 황태규 교수가 '자원까지 그리고 경제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지난 2



정읍시와 고창군이 공동추진하는 지역창안학교에 참석한 86개 팀 260여명이 입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년간 정읍시민창안대회 참여자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진행 과정을 설명한다.

'씨앗단계'인 창안학교를 수료하고 '뿌리단계'로 선정되면 오는 7월까지 공동체 사업을 구체화 하는 데

스트베드(실용사업)를 하게 되며, 뿌리단계 활동 우수자는 '줄기단계'로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입교식에서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역 발전은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

체 단위에서 찾아야 하며, 지역창안대회가 정읍과 고창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교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건축 인허가 민원 최소화

복합민원팀 운영

남원시는 건축인허가 복합민원의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복합민원팀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인허가 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로 했다.

건축인허가 민원은 건축주 입장에선 신속한 민원처리가 중요한 반면, 인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선 건축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고 시에 무작정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로, 건축주와 인근 지역주민간 중재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해 10여건의 갈등 민원을 해소했다.

특히 대규모 건축물 등은 민원 처리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복합민원팀 민원실무회의를 통해 관련부서 간 종합적으로 민원사항을 검토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합민원팀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건축주와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순창 '여성사회교육' 개강... 문화육구 충족·취업지원

순창군이 여성들의 문화육구 충족 및 취업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여성사회교육' 개강식이 지난 10일 황숙주 군수, 감사 및 관계자와 원팀 민원실무회의를 통해 관련부서 간 종합적으로 민원사항을 검토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날 개강식은 2013년도 여성사회교육 운영 성과 소개와 과정별 강사 위촉장 수여, 각 과정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상반기 여성사회교육과정은 순창군민 230여명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컴퓨터, 생활양재, 기타교실, 한지공예, POP손글씨, 서예교실, 기타교실, 라인댄스, 스포츠



댄스 등 총 9개 과정으로 5개월간 운영된다.

한편, 군은 이번 상반기 여성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과정에 한해 수업시간 연장 및 합반에 모든 수강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상반기 여성사회교육은 오는 6월30일까지 운영되며, 순창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남원농기센터, 120마을 농기계 순회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는 11일 대강면 방동리를 시작으로 60회 120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프로그램에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장원인·자가정비 수리 기술 및 안전운행요령 등도 포함됐다. 고장으로 장기

간 방치된 농기계도 부품가격으로만 수리가 가능하다. 한편 센터 측은 농기계 68종 407대를 구비하고 있으며 올해 경합기종 등 30여대를 추가구입해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69차례 129개 마을에 나가 924대의 농기계를 수리한 바 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정읍경찰서, 찾아가는 눈높이 치안설명회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지난 10일 오전 입암면 면사무소에서 이장 및 시의원, 면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눈높이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

내장상동, 태인면, 수성동, 신대인읍, 상교동, 고부면, 정읍노후제, 이평면, 북면을 거쳐 10번째로 개최한 이

번 치안설명회에서 정읍경찰은 2시간에 걸쳐 역점시책을 집중 설명하고 주민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김동봉 서장은 "정읍시민을 위한 공감치안 구현은 경찰만이 아니라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진지하게 노력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 어장 환경개선 6대사업 5억 투입

고창군은 어장 환경 개선으로 정당한 수산자원을 보존해 수산업이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6대 사업에 5억5200만원을 투입한다.

먼저 1억7300만원을 투입해 기존 어선의 저효율 기관·장비를 연료 소모가 적은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고 2610만원으로는 소형어선 현대화장

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마을 어장 및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불가사리를 제거하기 위해 1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190t의 불가사리를 수매하며, 어류·갑각류 등을 키우는 축제시 양식장에 방파·소독비 83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순창, 읍시가지 단독주택 음식물종량제 시행

순창군이 다음달 3일부터 순창읍 시가지의 단독주택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수거한 결과 쓰레기 매립장의 토양 및 수질오염에 나쁜 영향을 주고 수거과정에서 야생 고양이

이 등의 훼손으로 시가지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지난해 말 순창읍 시가지 53세대를 시범선정해 운영해온 결과를 토대로 수형 수거차량을 통해 1000여 세대의 단독주택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